

2018년 10월 24일,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조사남(여, 1930년생, 제주시 외도1동)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오동국에 장사 갔던 남선비가 노일저대에게 홀려, 싣고 갔던 곡식과 배까지 팔고 눈도 멀어 지내다가 본부인이 찾아왔다. 그러나 노일저대는 본부인을 죽이고 본부인의 행세를 하며 집으로 들어와 자신을 의심하는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아픈 척하였다. 사람의 간을 일곱 개 먹어야 낫는다 하여 일곱 형제를 모두 죽이려 했다. 그러나 영리한 막내아들에게 들동이 나서 노일저대는 죽어서 측간의 신이 되었다. 남선비는 주목대신이 되었고, 본부인은 조왕신이 되었으며, 막내아들은 문전신인 문전하르방으로 좌정했다.

[제보자] 옛날에 다 들어낫인디. 이것도 헛꼼 길어.

[조사자] 예게. 징어도 골아줍서.

[제보자] 옛날에 남선비렌 헌 사람이 잊어낫어. 남선비엔 헌 사람이 잊어낫인디. 부부 간에 나는 것이 아들을 일곱 성제 낫어. 먹을 것이 숭년전. 게난 그 남선비보고 부인이.  
“낭 구혜당 테우 짓어그네 외국 강 무곡이나 헤옵서.”

곡석을 구허영 오렌 허난 조그마한 배를 짓언 무곡 실엉 갓인디. 오동나라렌 헌 디 무곡치레 갓인디. 오젠 허당 보난 여자를 만낫어. 여자를 만나난  
“아이고, 옵서. 바둑이나 둘 보게.”

허영, 여자가 허난 여자야 아무 때나 남자들 홀리주. 바둑 두멍 혼 말 두 말 헌 것이 살기로 뒷 불엇어. 빈빈 놀멍 살당 보난 무곡친 거 다 먹어 불고 배도 팔아 불고 살 수가 엇일 거 아니. 살 수가 엇이난 질 어염에 대죽낭 허연 곳 가 막에 집을 지엉 이젠 쓸도 엇엉 체 빌어당 체죽 쑤엉 먹게 벌러진 솟 하나 봉가 당, 경허영 먹엉 살당.

부인은 이제 오카 저제 오카 영 기다려도 남자가 안 오는 거라. 경허영 아들 일곱 성제?라

“낭 비어당 조그마허게 테우 짓으라. 너네 아방 찾아보게.”

허연, 아들 일곱 성제가 골이 올라강 낭 비어단 테우를 짓언. 어멍이

“신을 한 베썩 삼으민 일곱 베. 두 베썩 삼으민 열네 베니까 신을 삼으라.”

신을 한 짐 걸며지고 오동나라렌 헌 디 갓어. ھ루 혜원 걸으민 혼 베 혈고 또 ھ루 혜원 걸으민 혼 베 허난 신을 마지막 신을 때 가당 보난 나록밧이라. 벼. 그 밧에 새가 막 앗아가난 어떤 아가씨가 앗앙 새를 ㄷ렷어.

“요 새야, 저 새야. 너무 육은 체 말라. 느보다 더 육은 남선비도 노일저대 홀림에 드난 전배독선 다 망허고 무곡친 거 다 먹엉 체죽 단지 옆이 찬 살았져. 저 새.”

새를 ㄷ리난,

“아이고, 너 ھ새 뭣이엔 골암디?. 너 골은 말 또 골아 보라. 뭣이엔 골암디?  
뭣이엔 골암디?”

허난

“나 아무 소리도 안 헷우다.”

“ھ샌 니 새 ㄷ리는 말 뭣이엔 헷이? 또시 골아 보라. 구슬 주고 댕기 주마.”

허난

“나 저 옛날에 널보단 더 육은 새보다 더 육은 남선비도 노일저대 홀림에 드난 전배독선 다 팔아먹고 무곡친 거 다 먹언 질 이염에 체죽단지 옆이 찬 살암덴 헷우다.”

허난

“아이고야, 경헌 사람 어디 살았이니, 어디 살았이니?”

“을로 영 가당 보민 대죽남집이 잇수다.”

경허영 영 가당 보난 대죽나무 집에 그 하르방이 눈 어둡고 검질 소곱에 앗았어. 할망은 체 빌레 가 불고.

“넘어가는 사람 해가 져 가고, 요 문둥이라도 빌엉 오늘 밤 살양 가쿠다.”

허난 하르방이 우리 할망 오민 욕헌덴 허멍 아니된덴

“아이고, 문둥이라도 빌립서. 난 디 난 사람이 집을 짓엉 납니까? 오늘 밤 새 영 가쿠다.”

게건 그 검질 트멍에라도 앗았이렌

“나 배고프난 밥을 지엉 먹어사쿠다.”

“저 솟 열엉 보민 우린 체죽만 쑤엉 먹엇어.”

솟 읊양 보난 체가 대작대작 벌러진 솟디 헷이난 그걸 막 싯쳐뒀 이디서 쌀지어간에 밥을 지엉 검질 소곱에 앗인 하르방신디 거려 노난

“아이고, 나도 옛날에 큰부인이영 살 때에 이런 밥도 먹어낫저마는.”

허멍 눈물을 드륵드륵 흘리멍. 눈 어두와 부난 이녁 부인인 줄 몰란게.

“아이고, 나 아들 일곱 성제 난 부인이우다. 하르방 촇이례 왓수다.”

“아이고, 어떤 말이라. 어떤 말이라. 아들들신디 가얄로구나.”

경허연 출려가난 이제 노일지대가 치마깍에 어디 간 체 혼 줌 빌엉 오란

“아이고, 체 빌멍 죽 쿤 멱이당 보난 어디 넘어가는 간나이 찬 앗안 히아까시

했구나.”

“간나이가 아니고 아들 일곱 성제 난 부인이 나 찾으려 완. 아이고, 가사켜.”

허난

“아이고, 게믄 나도 형님이로구나. 나도 곁이 가쿠다.”

허난

“아이고, 우리집은 막 가난허고 아긴 한한허고 먹을 거도 엊고 가도 살 수 없다.”

허난

“아이고 나 굴묵이라도 짓엉 얻어먹고, 굴묵이라도 짓어찧 얻어먹엉 살쿠다.”

이젠 큰부인은 불쌍하여 뵈난 돌양 오는 거라. 오당 보난 큰 물이 잊어. 연못  
이 잊이난

“아이고, 형님 옵서. 등에 물이나 놓 가게.”

허난

“경허게.”

허영

“치메 저고리 벗엉 이 팽 우트레 놔둡서. 굽읍서. 등에 물 놓구다.”

치메 저고리 벗엉 팽 우트레 나뒹 영 굽으난 물 한 줌 지치는 체허단 물더레  
잘락 거밀어 불엇어. 큰부인은 물더레 풍당 빠젖어. 빠정 죽으난 이제 노일저대  
족은부인은 큰어멍 입어난 치마저고리옷 입고 허영. 하르방 눈 어둡고 허난 뵈리  
지 못허영

“저 노일저대 행실머리 괴씸허연 물에 빠지와 불엇수다.”

“아이고, 잘햇저. 그년으로 망허연. 전배독신 다 팔아먹고 망햇저.”

허난 게난 배 탄 오는 거라. 아들들은 막 어멍 아방 올 때만 기다리단 보난 바  
다에 배돛대에 불 비추난 ‘오값구나.’ 허연, 이젠 배 안에 누렷어. 아들들이 다  
어멍 아방 업엉 누리왓어.

‘우리 어멍 옷은 우리 어멍 옷인디 우리 어멍 아니 닮다.’ 허영, 아들들은 이상  
허게 생각힌디, 어멍을 앞이 세완

“집 촛양 걸읍서.”

“아이고, 나 멀미해 부난.”

[조사자] 시험했구나.

[제보자] 경허난. 어멍이 안 닮아 베니까

“집 앞이 상 걸읍서.”

“멀미허영 집 촛지 못허켜.”

“그동안에 못 촛으쿠가게? 영 이레 그룹서.”

허영 그레 가네

“어머니, 저 밥 협서. 우리 먹게.”

허난

“아이고, 나 쓸항이 어디 신지 모르켜.”

“어멍, 그동안에 쓸항 신 디도 모르쿠가게. 요디 쓸항 싯우게.”

허연 밥을 짓는 것이 옛날엔 남박세기에 밥을 거령 먹을 때난, 큰아들 박새기, 셋아들 박새기 뜨로뜨로 잇인디, 큰아들 먹어난 박세기 족은아들 주고, 족은아들 먹어난 박새기 큰아들 주난 ‘우리 어멍 분명 아니로구나.’ 허영, 아들들이 눈치로 아는 거라. 눈치로 알아가난 ‘아들 일곱 성제 죽여 불어사 훌로구나.’ 허영, 하르 방신다.

“배 아판 곧 죽어지ку다. 배 아판 곧 죽어지ку다.”

“게믄 어떻허여.”

“어디 강 점해 봅서. 점해 봅서.”

허난 하르방은 눈 어둡고 지펭이 짚엉 두작두작 질로 돌양 가는 동안에 노일 저대엔 헌 예펜은 바구리 썬에 샛담으로 넘어간 영 질 에염에 앗앗이난, 두작두작 몽둥이 짚엉 가 가난

“어디 값우가?”

“우리 할망 아판에 문점허레 값우다.”

허난

“이레 옵서. 나가 굽아 안네저.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어사 좋구다.”

허난

“아이고, 이거 생전 들어본디 엇인 소리. 이런 소릴 어떻 들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샛담으로 확 넘엉 오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간 뭣이렌 굽읍디가?”

허난

“들어본 디 엇인 소리 허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으민 좋덴.”

“아이고, 점은 혼 밧디 강 들으민 안 됩니다. 다른 디 또 강 들어옵서. 삿갓 쌩 앗인 중이 질 에염에 잇우다. 그디 강 들어봅서. 두 밧디 강 들엉 허민 훌 수 엇우다.”

그디 강 두작두작 몽둥이 짚으고 눈 어두운 하르방이 가당 보난 질 에염에 삿갓 쌩 앗앗단

“아이고, 어디 가는 영감이우까?”

“우리집 아이 어멍 아판 문점허레 값우다.”

“아이고, 아래 옵서. 나 굽아 안네저. 아들 일곱 성제 잇구나마씨.”

“눈으로 본 듯이 잘 알았우다.”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어사 이 병은 좋구다.”

허난, 들어본 디 엇인 소리 두 반디 강 들어도 원 경 굽아. 집으로 두작두작

오는 동안엔 샷담으로 넘영 오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디 가난 뭐렌 골읍디가?”

“그디 가도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어사 좋덴 허영게.”

“할 수 엇이 아들 일곱 성제 다 죽으민 혼 배에 두 개씩 네 배 나민 으덟 성제 낫쿠다.”

이젠 칼을 골았이난 동네 할망은 불 담으레 왓어. 옛날은 성냥 엉으난 불 담아당 후후 불어그네, 불 담으레 간

“남선비 뭣 허젠크 칼 골았어?”

허난

“우리 아이 어멍 아팡 두 반디 강 점 허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肯 허연 칼 골았우다.”

허난, ‘이거 무슨 소리라.’ 허영 할망은 올레에 불도 아이 담양 데껴두고 올레 레 뛰어간 남선비 아들덜 일곱 성제 놀았이난

“아이고, 너네 아방 일곱 성제 다 죽이젠크 칼 골았져. 들으라”

허난 일곱 성제가 막 산더레 올르는디 막둥이가 영리헌 거난, 집이 간에

“아버지, 뭣허젠크 칼 골았우가?”

허난

“느네 어멍 아판 두 반디 강 점 허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肯 허연 칼 골았져.”

허난

“아버지, 아들 일곱을 눈 어두운디 어떻 묻으쿠가. 그 칼을 날 줍서. 나가 강으네 성들 애 내어오고 날랑 아버지 손으로 죽여도 좋수다.”

허영 칼을 슬쩍 내어주난, 가전 산중더레 막 올른 거라.

일곱 성제가 가단 막 배고프고 조라왕 지치고 허난 테역밧디 노릇노릇 누웠어. 누웠인디 꿈에 선몽해 준 거라. 백발 노인이 나왕

“너네 잠을 자지 말양 부지런히 가당 보믄 산토새기가 일곱 개 새끼 돌양 내려오았이메, 그 에밀랑 씨 전종으로 놔두고 새끼 여섯이랑 심어그네 애 내어오라 그네 어멍 맥영 느네랑 목숨 살라.”

허연, 가당 보난 새끼 여섯 둔 산듯이 내려오았이난

“아이고, 느 에미랑 씨 전종허곡 새끼 여섯이랑 우리 도라. 우리 목숨 살아나켜”

새끼 여섯 애를 때 내엉 오랑

“어멍, 이거 먹엉 살아납서.”

“성들랑 올레베이 곱아십서.”

족은동생이 강 이제

“아이고, 넌 존샘도 좋다. 너 시믄 먹어지느냐? 늘랑 바깟더레 나가 불라.”

바갓디 나강 문구녕 탁 허게 터주안, 영 뵈려 보난 먹는 체만 체허연 자리 알  
레 묻어 불어 두없어. ㅎ꼼 싯단

“어멍, 다 먹읍디가?”

“오, 다 먹엇저.”

“게난 병은 어떻허우까?”

“하나만 더 먹으민 아주 좋을 거 닳다.”

“게민 난 죽을 거난 어머님 머리에 니 잡아뒹 죽으쿠다.”

허난 이제

“아이고, 중병 든 딘 니도 아이 잡나.”

“게건 자리나 치와뒹 죽으ку다.”

“병 든 딘 자리도 아니 칩나.”

허난 확 허게 걷언 보난 이부자리 아래 몬딱 묻엉 놔뒀어. 묻엉 놔두난

“형들 다 모다 옵서.”

허난, 죽이젠 모다 오난 이젠 듣는 것이 어디 돌을 디 엇이난 옛날에 화장실이  
도야지 질루곡 통시지. 통시 배솟간 아래로 강 머리로 목 졸란 죽엇주기. 남선비  
는 눈 어둑으난 올레에 도망치단 정주목에 간 발 걸령 박아정 죽고.

경허난 남선빈 올레 정주목신이 되고, 이제 측간에 강 목매엉 죽으난 그 할망  
은 화장실 할망이 되난, 옛날 측간에 화장실에 배솟간에 돌은 조왕에 오민 동티  
가 난덴 헷주기.

게난 어멍은, 말자이 아들 일곱 성제가 어멍 죽은 디 오동나라 간 연못 디에  
요왕드리 난, ‘어멍 머리턱 올라옵서.’ 허영, 머리턱이 용올레기에 감아전 올라오  
난 ‘우리어멍 이 물에 죽은 게 분명하구나.’ 허영, ‘석 달 열흘 7물아 줍서.’ 허  
연 물 다 퍼된 보난, 어멍 빼 살그랑헷어. 게난 그 빼 줋어당 어멍 꽃 빌어다네  
번성꽃허연 살린 것이 그 어멍은 조왕할망이 되고.

노일저대엔 헌 몽니 궂인 할망은 화장실에 돌은 옛날에는 돌로 허영 배솟간  
하민 그디 돌을 조왕에 오민 동티나고 조왕에 돌이 화장실에 가민 동티나고. 경  
헌덴 허고.

남선비는 정주목에 발 걸령 죽으난 주목대신이 뒤고, 큰할망은 조왕할망이 뒤  
고, 족은할망은 측간 배솟간할망이 뒤었어. 경허난 아들 일곱 성제는 청대장군,  
백대장군으로 동서남북에 좌정허고 족은아들 영력허난 문전하르방이 된 거라.

- 핵심어: 남선비, 오동나라, 일곱 성제(일곱 형제), 노일저대, 애(간), 통시(변소), 조왕, 동티(동토, 動土), 측신, 문전하르방(문전신), 족은아들(작은아들), 청대장군, 백대장군, 정주목신, 산토새기(산돼지), 백발노인, 정주목